

북한개발소식

2026 APR

04

통권 246호

이달의 주제

북한 제9차 당대회와 우리의 기도

탈북민 수기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4화)

북한뉴스

평양-베이징 북중 여객열차, 6년 만에 재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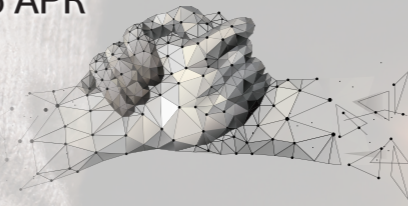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 제9차 당대회와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6 APR



이달의 주제 :

북한 제9차 당대회와 우리의 기도

- 권두칼럼 01** 북한 제9차 당대회와 우리의 기도
- 칼럼_1 09** 임을출 _ 양북한 제9차 당대회 : 정치와 대외(대미, 대남)관계 부문 평가
- 칼럼_2 16** 양운철 _ 북한의 제9차 당대회 평가 및 전망: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 칼럼_3 21** 최 설 _ '목전 이득' 질타한 제9차 당 대회, '인간개조' 사상이 사회적 대안인가
- 탈북민 수기 27** 탈북민 수기 : 김정직 목사 (제 4화)
- 북한뉴스 33** 평양-베이징 북중 여객열차, 6년 만에 재개 외
- 서평 36** 북한기독교역사사전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외



북한의 제9차 당대회가 2월 19-25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북한의 노동당 대회는 국가 최고의 권력기관이며,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대회라는 명칭 때문에 단순히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당독재 국가인 북한의 집권당인 노동당의 전당대회는 국가의 헌법보다 상위에 있는 '당 규약'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또한 이 대회를 통해 주요한 인사 변동, 외교 노선, 군사, 경제 분야 등에서의 5개년 계획 등이 발표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북한의 방향성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이다.¹⁾

그간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각종 핵 투발 수단 개발 및 잠수함·대형 군함 건조 등의 군사력 증강, 중국 전승절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적극적 외교 노선, 선대의 통일 노선을 과감하게 폐기하는 모습 등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런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이 어떤 노선을 대외적으로 천명할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이 쏠린다.

이번 글에서는 향후 북한의 5년의 바로미터가 될 이번 제9차 당대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북한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과 기도 제목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김정은, 9차당대회서 만장일치로 총비서 재추대...애시당초 '반대표'는 불가능하다?", BBC코리아 (2026.02.23),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rk86gyy6g5o>>



김정은 2.0 시대의 개막

이번 당대회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의 후광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자기 시대’를 선언한 분 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점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은 이번에 개정된 당 규약에 김정은이 주창한 ‘새시대 5대 당 건설 노선’(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품 건설)이 포

함된 것이다.²⁾ 김정은주의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대체하여 당의 주요 사상 노선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사에서도 기존 항일 빨치산 2세대 그룹이 완전히 퇴진하여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번 제9차 당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8명 중 절반이 넘는 73명(53%)이 교체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항일 빨치산 2세 그룹을 대표했던 최룡해, 오일정 및 박정천, 리병철 등 군 원수급 원로 등이 명단에서 사라졌다. 최룡해의 올해 나이가 76세인 것을 고려하면 이들의 퇴진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김정은 본인이 주도하는 ‘핵 보유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생각할 때 세대교체와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북한의 모든 간부가 기존 ‘김일성, 김정일’이 아닌 ‘김정은’ 단독 배지를 착용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배지’를 달고 등장한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모두 ‘김정은 배지’를 착용했다. 간부들이 모두 ‘김일성·김정일 배지’ 대신 ‘김정은 배지’를 착용한 것은 간부들이 김정은의 이념과 의도에 대한 더욱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³⁾

김정은 2.0 시대의 개막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선대(김일성, 김정일)를 뛰어

2) 2022년 10월 17일 김정은이 당중앙간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처음 제기된 이 노선은 지난해 10월 8일 김정은이 당창건 사적관을 방문하여 한 기념 연설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정치 측면에서는 전 당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철저히 실현할 수 있는 조직체계 확립이다. 둘째, 조직 측면에서는 당원들을 철저히 관리 통제할 수 있는 당세포와 초급당 강화이다. 셋째, 사상 측면에서는 당사상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수령의 유일적인 결론에 따라 처리하는 질서 구축이다. 넷째, 규율 측면에서는 어떠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중앙에 대한 충성으로 견뎌 낼 수 있는 강철같은 기강 확립이다. 다섯째, 작품 측면에서는 당원과 간부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새로운 요구에 맞게 세분화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질서 확립이다. 참조: 박영자(2025), “북한의 9차 당대회 전략: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 평화통일 2025년 11, 12월호 vol.218, <<http://webzine.puac.go.kr/tongil/sub.php?number=3877>>

3) 정성장 (2026), “김정은 2.0 시대’의 개막과 김주애 후계체계에의 함의 -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에서의 파워 엘리트 변동 평가 - ” 세종연구소 세종포커스 26년 2월 27일, <<https://www.sejong.org/web/board/1/egoread.php?bd=1&itm=4&txt=북한&pg=1&seq=12744>>

넘는 김정은 이상화 단계 진입을 의미한다.⁴⁾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당 총비서로 재추대 되었다. 대회 결정서는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칭했다. 노동신문은 재추대 된 김정은에 대하여 ‘절대의 군사력’, ‘건설의 대번영기’, ‘지방변혁의 시대’를 업적으로 열거하며 “기적의 시대를 열어가는 ‘천하제일 위인’”으로 추앙했다.⁵⁾

핵 무력 증강을 넘어 운용 능력 향상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국방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핵 무력과 관련해서 지난 8기 때에는 양적 증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계획에는 질적 증강과 군사적 측면에서의 전략·전술적 활용성 제고 등을 목표로 설정한 모습이다.



<2025년 4월, 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하는 북한의 5000t급 구축함 최현호>

이번 당대회 보도에서 북한은 “핵기술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제공, 지원할 것”을 명시했으며 “연차별로 국가핵무력을 강화할 전망적인 계획”을 천명함으로써 핵 무력 강화 기초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지상 및 수중 발사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공격종합체, 위성 공격 자산, 전자전 무기체계, 진화한 정찰 위성”을 중점 개발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정찰 위성 등은 지난 8기 시기에도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진척이 더뎠던 분야로서, 미완의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당대회는 또한 핵무기 실전 운용을 위한 체계 구축이 강조되었다. ‘핵방 아식’로 지칭하는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 즉 핵무기를 실제 전장에서 운용하기 위한 지휘통제망의 원활한 운용이 숙달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유사시 핵 방패가 신속 정확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임전 태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상용 무기 개발과 함께 특별히 해군력 증강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해군 수상 및 수중 전력의 핵무장화를 중심으로 해군 작전능력을 급속

4) 당 1인자로 다시 추대된 김정은, 원로그룹 퇴진...“선대 후광 없는 유일영도체제”, 경향신문 (2026. 02. 23.),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231516001>>

5) 북 “기적의 시대 펼쳐는 천하제일 위인”...김정은 본격 이상화, 연합뉴스 (2026. 02. 25.), <<https://www.yna.co.kr/view/AKR20260225018300504>>

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갱신”할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핵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잠수함 등 해군력 증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8기에도 최현호 건조 등 해군력에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북한이 원하는 실제 출항과 실전 운용, 미사일 발사 체계 검증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인 만큼 이번 당대회에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통미봉남(通美封南)의 대외 전략

이번 당대회에서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북한의 노선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에 대해서 북한은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다른 주권국가에 침략과 무력 사용을 일삼는 ‘특급 불량배’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내비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는 적대국으로 취급할 것임을 다시금 밝혔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안전하게 살아갈 유일한 길은 우리와의 모든 것을 단념하고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라며 ‘적대적 두 국가’ 기초를 재차 확인했다.⁶⁾ 이 외에도 ‘자본주의’ 및 ‘외래문화’에 대한 경계를 강조는 대목에서 “우리 내부에 저들[한국]의 문화를 유포시키려 한다”는 대남 경계 발언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었다.⁷⁾ 북한이 사상 문화 통제를 대남 적대시 정책과 연계하여 앞으로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제의 고속 성장 대신 안정적 회복으로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도 발표하였다.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구축된 발전 토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위에 질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관리중심전략이 제시되었다.⁸⁾

6) “韓 동족 배제, 美 대화 가능”…北, 노골적인 ‘통미봉남’ 메시지, 한국경제 (2026.02.2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22678501>>

7) 임수진(2026), “9차 당대회 분석: 사회문화 정책”,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812호 (2026.03.04), p. 3.

8) 정은이(2026),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5): 경제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6-16 (2026.02.27.)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간 공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 산업을 유지하면서 신에너지·우주·인공지능 등 신산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다. 또한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위상이 격상되었고 농업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발전 20x10 정책과 관련해서는 해당 정책으로 지어진 공장과 시설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하부 단위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전국적인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기조가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은 고속 성장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점진적·질적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5년 12월 24일, 함경남도 정평군 종합봉사소 준공식에서 봉사소 내부 매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경제 성과의 평가 기준도 구체적인 부분별 수치보다는 인민 생활 개선이 강조되었다. 특히 이번 새 5개년계획에 따르면 지방발전 20x10 정책에 따라 공장 건설과 함께 매년 20개의 시, 군에 병원과 종합봉사소(상점, 도서관, 수영장, 극장 등이 모여 있는 북한식 복합쇼핑몰)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는 노동 간의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줄이겠다는 북한 당국의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점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국과의 관계 강화 움직임이다. 이번 인사에서 김성남(1953년생)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이 당 비서 겸 부장에 임명되어 국제비서직이 부활하였는데, 중국을 상대하는 책임자를 비서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대중 관계 개선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⁹⁾ 같은 맥락에서 올해 초 북한 당국이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을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불러 관광시설을 참관하게 한 것도 주목된다. 그간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지 않았는데, 앞으로 관광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당대회에서 관광을 “나라의 경제장성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설정한 만큼, 북한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한동안 소원한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¹⁰⁾

9) 정성정(2026), “북한 제9차 당대회 평가 및 정세전망: 정치 부문”, IFES-현대북한연구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26.03.12.), p. 8.

10) 이지선(2026), “북한 제9차 당대회 경제전략: 지속성과 변화, 그리고 대남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814호 (2026.03.05.), pp. 3-5.

김정은주의와 사상개조

이번 당대회에서는 ‘사상 무장’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먼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김정은이 주창한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 건설)이 당규약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은 이민위천·일심 단결·자력갱생의 이념을 표방하고 당의 총노선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노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새 시대의 요구’로 5가지 과제를 제시했는데, 혁신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강한 규율과 기강 확립, 사상적 자극과 대중 동원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¹¹⁾ 이외에도 ‘사회주의 문명건설’의 성과를 공식화하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기초를 한층 강화하였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자력갱생과 사상 무장을 핵심 동력으로 삼아, 모든 분야와 지역의 동시적 발전 및 인민 생활의 문명화를 달성하겠다는 기존의 기초를 한층 더 강화한 모양새이다. 특히 인간의 내면과 의식 구조의 변화를 중시하는 ‘사상개조’가 문화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대혁명노선에 따른 사상개조, 기술개조, 문화개조 사업이 전국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되고, 단순한 외부 요소 차단을 넘어 주민 개개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도덕규범을 체계적으로 관리·지도하는 방향으로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

우리의 기도

이번 북한의 제9차 당대회는 기존의 정치, 경제, 군사, 사상 노선 등에서 특별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¹³⁾ 북한은 지난 5개년 계획은 성공했으며, 대외관계에서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국가들과는 친선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지만, 북한에 적대적이며 체제를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남북한 2개 국가 주장도 되돌아갈 수 없는 확고한 것임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것 역시 기존 입장의 반복이었으며, 자력갱생을

기초로 기존의 지방발전 20x10정책을 중심으로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경제 분야의 계획 역시 새롭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번 제9차 당대회는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수를 선택했다는 인상을 준다. 대외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유사시 핵 사용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은 핵 무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외래문화를 차단할 명분으로 한국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경제적으로도 큰 폭의 성장 대신 안정적·점진적 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목에서 개혁·개방 등 경제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있더라도 체제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면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선대를 넘어서는 김정은의 권위를 확립하고 철저한 사상 투쟁과 기강 확립을 통해 내부의 불안 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제9차 당대회를 살펴볼 때, 북한의 방향 전환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상당부분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보다는 군축 협상 정도가 그나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이다. 내부적으로도 김정은에 대한 이상화의 기초가 한층 더 강화되고 주민들의 생활 문화에 대한 통제는 심해지는 가운데 외부 정보의 유입이나 인권의 증진과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도 예전만 못한 듯하다. 남한을 미국을 대신하는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상종 못 할 존재를 넘어 유사시 핵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미루어 볼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려도 당분간 해소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앞에서, 문득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복음서의 구절을 떠올리게 된다.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바닥나고 한계에 부딪힌 바로 그 지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통로임을 종종 경험하곤 한다. 지금의 북한 문제 역시 우리의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의 제9차 당대회를 살펴보고 고민해 본 기도의 제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나누어본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약해지고 오히려 군비 증강이 심화하는 가운데 북한에 의해 한국이 주적으로 지목되는 등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유사시 우발적으로라도 대

11) 오경섭(2026),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1): 정치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6-12 (2026.02.27.), pp. 3-4.

12) 이지순, 조정아, 정은미 (2026),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분석(6): 사회문화 분야”,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26-17 (2026.02.27.), p. 6.

13) “북한의 9차 당대회: 변화를 선택하지 않았다”, 평화재단 현안진단 373호 (2026.03.01.), <https://www.pf.or.kr/research/sps_currntissue/view/924>



규모 군사 분쟁이나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둘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호적인 국제 정세 조성을 위해 기도 하자. 북한이 선택한 전략은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와 러우 전쟁 참전을 통해 얻게 된 지원, 그리고 향후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 안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없다면 북한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핵무기를 개발 및 유지하면서 민생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곤란을 겪을 것이다. 이외에도 향후 예상되는 북미 대화가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셋째,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증진을 위해 기도하자. 이번 당대회의 경제·민생 기조를 통해 북한 당국도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이 외치는 '이민위천'이 구호를 넘어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 특히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외래문화 통제를 넘어 '사상 개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 당국의 기조가 주민들의 권리를 더욱 침해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자.

현재 답답한 상황은 한반도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더 구하게 한다. 향후 러우 전쟁 종식이 가져올 여파, 북미 대화의 성사 가능성과 그 결과에 따른 영향, 여전한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기대 등 여러 정치적 이벤트 속에서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희망의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순교의 피를 흘리며 숨죽여 그 땅을 위해 기도해 온 북녘의 형제·자매들의 그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어지러운 한국 교회이지만 여전히 늦은 밤과 이른 새벽,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올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리라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평화를 넘어 복음적인 평화 통일로까지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남북한의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자.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져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칼럼 1

북한 제9차 당대회: 정치와 대외 (대미, 대남)관계 부문 평가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 당대회가 갖는 전략적 함의

북한 노동당 대회가 갖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국가의 핵심 노선과 정책적 지향점을 공식화하고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최고 통치 행위라 할 수 있다. 수천 명의 대표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되는 이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당 규약을 심의하고 중앙기관을 선거하는 의결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령의 절대적 권위를 재확인하고 당원과 인민들에게 향후 5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매진해야 할 구체적인 투쟁 목표를 하달하는 동원 기제로서 작동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정례화된 당대회는 당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완전히 복원하고 수령의 지시를 정책화, 법제화하는 권력 공고화의 핵심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전략적 함의 측면에서 당대회는 북한이 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어떤 생존 전략을 채택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탄의 역할을 한다. 이번 9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을 선포하고 대외 기조를 확정하는 것은 단순히 내부 결속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국가 발전의 시간표에 맞춰 국제 사회가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지정학적 승부수의 성격을 띤다. 이는 적대 세력에게는 공포와 불확실성을 심어주어 정책적 양보를 끌어내고, 우방국에게는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여 협력의 명분을 제공하는 대외 메시지 발신 수단이 된다.



〈제9차 당대회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제9차 당대회에선 향후 5년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전 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과업과 목표를 제시하며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로운 고조기를 선언하였다.¹⁾ 이번 대회의 기본 사상과 정신은 지난 5년간 개척해 온 전면적 발전의 성과를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비약적 결실을 맺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는 주체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그 어떤 외부적 요인이나 첩첩난관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리식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한 승리로 이끌겠다는 당의 단호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겉으로 ‘강국 건설’이라는 화려한 수사를 동원해 자신감을 내뿜고 있지만, 문장 사이사이에는 체제 유지에 대한 깊은 불안감과 이를 타개하려는 필사적인 통제 심리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김정은이 내세우는 과시적 자신감의 원천은 민생 경제가 아닌 오로지 핵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억제력과 수령의 무오류성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기하여 국제 사회의 비핵화 논의를 원천 차단하고 내부적으로는 가짜 자부심을 주입하는 한편, 자신을 천재적 이론가로 신격화함으로써 어떤 시련도 지도자만 믿으면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강요해 체제 이탈을 막으려 한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용어를 통해 핵 개발에 치중하느라 소홀했던 경제와 문화 등 전 분야의 동시 발전을 약속함으로써 민심을 달래는 동시에, 모든 성과를 ‘김정은의 령도력’과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 덕분으로 돌려 1인 독재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러시아와의 밀착과 군대 파견을 ‘자주와 정의의 기치’로 포장하는 노림수는 국제적인 고립을 오히려 ‘다극화된 세계 질서의 주역’이라는 허구적 지위로 격상시켜 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고,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세계가 우려러보는 강국’이라는 가짜 자부심을 주입해 장기적인 결핍을 견디게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9차 당대회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주체적 힘’으로 돌파했다는 서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제시될 방대한 5개년 계획에 대한 인민의 무조건적인 헌신을 유도하고, 핵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통해 그 어떤 외부적 압박도 통하지

1)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2026.2.26.

않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여 국제 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2. 정치부문

제9차 당대회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추진력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힘 있게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²⁾ 3대 혁명 노선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당의 총노선이자 주체적 혁명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번영시키는 철저한 자주정신의 발현이다. 북한은 국가 건설의 전 역사를 3대 혁명의 역사로 규정하며, 모든 부문과 지역이 3대 혁명화될 때 비로소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사상 개조를 앞세우면서 기술과 문화 개조를 병행하는 이 투쟁은 지난 5년간 국가 부흥의 개척기를 열어온 핵심 동력이었으며, 향후 모든 분야와 지역의 동시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이끄는 실천적 방략으로 강조되었다.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기는 국가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첫째로,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일치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고 강한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선차적 과제로 나선다. 이는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 아래 내각 중심의 통일적인 지도 관리 체계를 보강하고 전 사회적인 준법 기풍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단위 특수화나 본위주의와 같은 무질서한 현상을 철폐하고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합리적으로 동원하고자 한다. 둘째는 넓은 도식과 틀을 타파하고 부단히 혁신하며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과거에 합당했던 방식이라도 현재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하며,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창적인 개발을 지향함으로써 시대 발전 추세에 뒤떨어진 완고한 보수주의와 비과학적인 경험주의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 셋째 요구는 모든 사업을 과학적이고 예견성 있게 진행하며 전문가적 자질을 중시하는 태도다. 주먹구구식이나 하루살이식 사업 태도를 버리고 모든 일을 수치



〈북한 3대혁명 기념탑〉

2)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사상과 과업을 깊이 체득하자] 오늘의 변혁투쟁의 힘있는 추진력,” 『로동신문』, 2026.3.3.

와 실리를 바탕으로 타산해야 하며, 지식과 기술이 높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적화된 사업 방식을 구현하는 전문가 중심의 일본새를 확립할 것을 강조한다. 넷째로 생산과 건설에 대한 지도 방법 및 방식을 혁신하고 일꾼들의 지휘 능력을 높여야 한다. 특정한 우수 단위만 내세우는 행세식 사업에서 벗어나 뒤떨어진 지역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며,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보다는 자체 역량을 성장시키는 집행 과정과 전반적인 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상의 힘을 활용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난관을 돌파하는 사상 사업을 선행하는 동시에, 대중의 창조 의욕을 꺾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 축재와 같은 반인민적인 현상과는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도덕적 단합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면적 발전의 요구들은 규율과 과학, 인재를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사상 사업의 틀 안에 갇혀 있다. 자율적인 혁신을 가로막는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은 결국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경제적 비약과 전면적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게 된다. 김정은이 제시한 ‘전면적 발전기’의 5대 요구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목표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도약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체제 이완을 방지하고 김정은 1인 지배력을 경제 전반에 수직적으로 관철시키려는 통제 전략이 반영되어 있다.

3. 대외 관계 부문

김정은은 당대회 총화 보고 연설에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세습적이고 고질적인 미국의 적대시 정책’ 탓으로 돌리며 국방력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정당화하는 동시에, ‘핵 요소가 동반된 군사적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핵 무력 고도화가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임을 강변하고 있다. 또한 아태 지역의 ‘미국 주도 블록’을 직접 겨냥함으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를 침략적 실체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증강을 단순한 유지가 아닌 ‘항상 앞서나가야 할’ 절대적 과제로 격상시켜 무력 증강의 무제한성을 선포하고 있다. 김정은은 외부의 위협을 극대화하여 묘사함으로써 내부적인 경제난과 자원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국가 생존’이라는 거대 담론으로 덮고 국방비 지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위태한 상황’을 강조하는 노림수는 주민들에게 상시적인 전쟁 공포를 주입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한편, 국제 사회에는 자신들의 핵 보유와 미사

일 개발이 협상의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임을 각인시켜 기정사실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이 깔려 있다. 특히 세계 군사력의 발전 추세를 언급한 것은 첨단 무기 체계 개발을 멈추지 않겠다는 신호이며, 이를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압도적인 국방력’을 과시하여 대북 압박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향후 대외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군사 외교적 계산을 내포하고 있다.

대미 정책과 관련해 김정은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안보 위기와 혼란의 원인을 미국의 패권 정책과 서방 세력의 전횡으로 규정하며, 국제법과 정의라는 명분이 강권 앞에서는 무력해진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내세워 주권 국가를 침략하고 기존 국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 위기와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 역시 이러한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제국주의가 실존하는 한 법과 질서만으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으며, 오직 강력한 물리적 힘만이 국가의 생존과 발전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철저한 힘의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맹비난함으로써 핵무력 고도화와 군비 증강이 ‘악마화된 적’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정당한 자위권 행사임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적대적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세상이 변하지 않는 한 핵 포기는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에도 최강경 대미 정책 기초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독자적인 전략적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헌법적 현실을 미국이 수용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미국의 대결적 관행이 지속될 경우 철저한 비례성 대응과 무력 수단으로 맞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병행하고 있다. 조미 관계의 향방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평화적 공존과 영원한 대결이라는 양단간에 선택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군사적·전략적 행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에 비중을 두는 듯한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미국을 근본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대결적 대응’에 압도적인 방점을 찍고 있다. 북한이 내세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전제 조건은 사실상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공식 인정하고 대북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라는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담고 있으며, 이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척하면서도 결렬의 명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전술에



〈2024년 6월 25일 열린 계급교양주제 미술전람회에 전시된 대남 적대시 포스터(사진=조선중앙TV)〉

불과해 보인다. 결국 북한의 참된 의도는 미국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보다는 핵 무력을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고도화하여 국제 사회가 자신들을 ‘핵을 가진 정상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사업총화보고에 나타난 김정은의 대남 메시지는 과거보다 훨씬 강경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북한은 한국을 더 이상 동족의 범주에 포함하

지 않고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선언하며,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실체’로 규정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교류와 협력 중심의 대북 정책을 ‘서투른 기만극’이자 ‘졸작’이라 폄하하며 기존의 화해나 평화 중심의 표현을 전면 삭제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 변화는 남북을 통일의 대상이나 같은 민족으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대립하는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김정은은 창건 이후 약 80년간 지속된 비정상적 남북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최종적인 결단을 내렸음을 선포하였다. 한국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화해와 단합이 아닌 체제 붕괴를 목적으로 한 음흉한 문화 침투와 무장해제를 획책해 왔으며, 특히 최근의 영공 침범 도발은 한국이 결코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님을 명백히 입증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이라는 타성에 젖어 불가능한 화해와 통일을 추구하던 착오적인 관행을 완전히 청산하고, 한국을 철저한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법적·행정적·물리적 대책을 전격적으로 실행하고 있음을 천명하였다.

이는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가 아닌 완전한 교전국 관계로 재정 의함으로써, 유사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의 법적·윤리적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남북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한국을 ‘지정학적으로 인접한 적국’으로 고립시키고, 어떠한 대화나 협상 없이 오직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물리적 대응만을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다. 특히 한국의 유화적 태도를 ‘서투른 기만극’으로 일축한 것은 향후 남한의 그 어떤 대화 제의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거부 의사의 표현이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내부적으로는 한국 문화의 유입과 동경을 ‘주적에 대한 동조’로 규정하여 사상적 통제를 극대화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또한

‘두 개의 국가’가 이미 유엔 가입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현실임을 강조하는 것은 한국의 흡수통일 논리를 원천 차단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실체를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명분 쌓기용 포석이다. 아울러 ‘현상 변경 시도 포기’를 요구하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핵 억제력의 선제공격 사명을 노골화함으로써 남측에 상시적인 공포를 심어주고 안보 비용을 극대화하려는 심리전이다.

4. 전망

북한은 남부 국경 지역의 요새화를 가속하며 물리적 단절을 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헌법과 관련 법규에서 통일 관련 표현을 삭제하는 등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법제화하는 후속 조치를 실천성 있게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대체한 ‘김정은주의’를 공식화한 만큼, 선대의 유산인 민족과 통일이라는 넓은 관념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직 힘의 논리에 입각해 한국을 다룰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당 대회 이후 600mm 초대형방사포와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주력탱크 등 실전화된 첨단 무기체계를 연달아 과시한 것은 자신들이 설정한 새로운 한반도 역학 구도를 고착시키기 위한 물리적 수단이며, 이는 핵보유국 지위를 흔들려는 사소한 움직임에도 ‘제2의 사명’인 선제적 공격을 개시하겠다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통해 획득한 21세기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군사 교리에 제도화함으로써, 단순한 억제력을 넘어 ‘영토 완성’을 위한 실전적 점령 능력을 과시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강화시켜 갈 것으로 보인다. 🌊

북한의 제9차 당대회 평가 및 전망: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양운철 (세종연구소)

1.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개최

북한에서 당대회는 지도자의 권위를 최대한 높이고, 심지어 우상화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규모의 정치적 행사이다. 관련하여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가 2026년 2월 19부터 25일까지 평양시의 4·25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당대회 주석단에는 김정은 당 총비서를 중심으로 좌우 각 8명씩 총 17명이 자리했다. 그 뒤에는 약 90명의 간부가 3줄에 나누어 자리했다. 이 외에도 5,000명의 대표와 2,000명의 참관인이 참석하였다.

제9차 당대회에서의 가장 큰 결정은 김정은 총비서의 재선출이었다. 김정은 총비서의 재선출을 위해 제9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미 북한에서는 김정은 주석으로 불리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우상화 작업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권력의 상위권에 포진했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당비서, 리병철 당 군수 정책 담당 총고문 등 오랫동안 북한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던 원로들이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세대교체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제9기 중앙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김여정의 지위도 격상되었다.

경제 부문과 관련해서, 김정은은 개막 연설에서 “경제 분야에서 인민경제발전 5개년계획이 기본적으로 완수되고 주요공업부문의 기술 하부구조와 기능을 보강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우리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오랜 기간의 로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계획적으로 활력 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하는 일정한 토대와 잠재력이 다져졌다...”라고 자화자찬했다. 계속해서 “수도과 지방을 다 같이 변모시키고 인민 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이 당적, 국가적으로 강력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 사업을 더욱 적극화해 나갈 수 있는 옳은 방향이 확정되었다”, “대외적으로 보아도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짐으로써 세계정치 구도와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환경도 마련되었다.”라고 연설했다. 이 외에도 김정은은 2026~2030년 까지의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하고, 산업의 현대화와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인이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2026~2030)은 경제 안정과 질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자력갱생의 틀 안에서 경제제재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에 대처하면서, 생활 수준의 향상, 산업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의 야심에 찬 연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현실이 크게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은 이미 제8차 당대회에서도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2021 - 2025)”을 강조했지만, 식량과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주체와 자력갱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극복할 수 없고, 무역 증대를 통한 국제분업의 이득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 민주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자원과 기술이 부족했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의 간섭이 줄고 대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의 규모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특히, 수출의 증가는 자국 상품이 해외에서 경쟁하기 때문에 상품의 취약성과 비효율적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북한의 경제정책은 국가가 주도하는 계획경제와 체제 결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방 경제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 최근 2년



〈3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9차 대회를 마치고 가장 먼저 찾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노동신문은 3월 18일 이 기업소를 '본보기로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증산 의지를 독려하는 사설을 실었다.'〉

간 북한 경제가 3%대의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지만, 자체 자본의 축적이나 생산성 향상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반대급부와 같은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경제제재와 고립 속에서 회복력과 결속을 완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다.

2. 제8차 당대회와 9차 당대회의 경제정책 비교



<북한의 당 9차대회 기념 우표>

제8차 당대회가 열렸던 2021년의 북한의 경제 현실은 어려웠다. 당시 북한은 코로나 사태, 식량과 에너지의 절대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1년 북한은 경제난 타개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지만,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어려웠던 시기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는 강경한 대남, 대외 정책을

통해 체제의 결속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제8차 대회에서 “생존과 체제 결속”을 강조했다면, 제9차 대회에서는 “안정과 질적 발전”을 내세우며 경제·군사·대외 정책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은 향후 북한이 경제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경제발전을 우선시하면서 군사력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지속할 전략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026년에 제9차 당대회는 북한의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외부의 위협에도 어느 정도는 대비할 수 있는 시점에 개최되었다. 현재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지만, 경제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제9차 당대회에서의 경제적 목표는 안정적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산업 현대화를 통해 기술 혁신과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농업 생산성을 높여 단순 증산에서 효율성과 품질 개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주택과 소비재 공급을 늘리고 사회복지 후생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은 선진국들도 모두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이런 야심에 찬 발전형 계획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큰 폭으로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생활 개선이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사적 소유권과 시장 원리가 정착해야만 한다. 이런 정책의 시행은 경제 개선이 아니라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 이행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북한 체

제에서는 불가능하다. 북한에는 체제 전환보다 경제적 개선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경제발전과 안정은 계속 강조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김정은의 자신에 찬 연설도 일부 경제의 질적 발전을 내포하고 있지만, 상업의 자유, 개인 소유권과 같은 필요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염원하는 경제의 질적 발전과 주민 생활 개선은 제도의 미비로 아직은 달성이 요원하다.

3. 러시아 지원이 북한 경제 성장의 동력

제9차 당 대회가 개최된 지금은 북한 경제가 회복세를 넘어 성장세로 접어드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대가로 상당한 무기와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다양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참여하면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과 에너지를 지원받았고, 다수의 북한 노동자를 러시아에 파견하여 외화 수입도 달성했다. 2026년 3월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무기·탄약 제공, 병력 파견 등)의 반대급부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약 77억~144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 군수품 가치이지만, 추가로 비공식적으로 받은 식량이나 유류 등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자국 군대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할 대가로 미화 약 6.2억 달러 정도의 수입을 얻었고, 지속해서 파병할 경우 매년 약 5~6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2025년 4월 28일, 러시아 언론인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와 관영 타스 통신 등이 공개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파병 북한군의 훈련 모습>

연합뉴스가 인용한 BBC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3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에 10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 러시아가 지원한 정제유를 북한 유조선이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항에서 북한으로 수송했다.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최소 43차례 이상 왕복 항해한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설정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상한선인 50만 배럴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유류 외에도 러시아는 북한에 식량, 군사기술,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와 병력의 대가로 최대 1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도 있다. 이 외에도 북한의 무기 컨테이너와 러시아의 식량 및 물자와의 교환이 포착되기도

했다. 물론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즉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지원은 열악한 북한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의 북한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 전망

북한의 제9차 당대회는 제8차 당대회 시절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북한의 경제 전반을 회복, 부흥을 시도한 점에 비해,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은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고, 산업의 현대화와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 경제가 5년 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북한은 과거처럼 단순한 의식주 문제에서 벗어나, 제한적이거나 주민 생활 개선과 산업 현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면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한 후, 러시아로부터 얻은 반대급부가 큰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군사비의 경우, 제8차 당대회에서 강조했던 핵·미사일 능력 강화나 대외 강경 메시지보다는 제9차 당대회에서 강조한 안정과 발전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선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 강화되겠지만, 억제와 안정 유지를 우선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미국을 최대의 원수나 적으로 간주하겠지만,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대화를 중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한국과의 관계인데, 한국에 대해서는 호전적인 태도를 유지하겠지만, 지나친 도발을 자제하고, 군사 부문 이외의 부분에서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9차 당대회 이후 외부 위협 대비는 유지하되, 내부 발전과 안정에 더 집중하는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제8차 당대회가 위기 극복에 중점을 두고, 식량·전력·기초 산업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면, 제9차 당대회는 생활 수준의 향상, 산업 현대화,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단순한 생존에서 벗어나, 제한적이거나 주민 생활 개선과 산업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생존과 체제 결속을 강조했지만, 제9차 당대회에서는 안정과 질적 발전을 강조하면서 자국의 정책을 균형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위협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경제력이 매우 높고, 군사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군사 억제력을 보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한다. 🐟

‘목전 이득’ 질타한 제9차 당 대회, ‘인간개조’ 사상이 사회적 대안인가

최 설 (NK 여성경제 연구소장)

들어가며

제9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메시지가 주목된다. 향후 5년(2026-2030) 간 국정 과제로 정치·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의 노선과 방향을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1970년대 신격화 정치와 당의 유일영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창했던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이라는 통치 기재를 호출한 것이다.

물론 과거의 구호를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니다. 북한 사회 변화를 재해석하고 변주한 것인데, ‘목전의 이득에만 치중하는 고질적 병집’을 질타하며 이를 타파할 ‘변혁 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 그 방증이다. 즉,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서는 사상혁명과 문화혁명을 근본적으로 ‘변혁’(變革)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변혁’의 대상은 식량배급시대의 북한 사회문화가 아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며 진화해 온 장마당시대의 북한 사회문화를 당의 노선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도다. 장사활동을 통해 생존법을 터득한 주민들의 의식을 과거와 같은 사상혁명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당국 역시 인지하고 있는 듯하다. ‘변혁 투쟁’으로 사상개조와 인간개조를 해야 한다고 꼬집은 이유다. 뒤집어 해석하면 북한 체제 내부에 견잡을 수 없는 균열의 발생을 자인



〈북한 노동당 제9차대회 결정 관철을 독려하는 선전물 앞을 지나는 주민들 (사진=노동신문)〉

한 셈이다.

실제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시장화가 수십 년간 진전되며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주의 대가정의 해체 수준은 장기간 노출됐다. 이는 당의유일영도로 집단주의를 강구하는 북한에서 개인주의 상징 ‘목전의 이득’이 제9차 당 대회에서 지적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주목할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혁명으로 인간개조가 시급한 사례로 꼽은 곳이 바로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신설된 생산기지와 봉사기지다. 이곳은 지방공업공장과 서비스사업망, 그리고 문화시설인데, 완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했다며, ‘극도의 태만과 무책임성’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단순히 시설 관리 부실을 질타한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 수뇌부의 가장 큰 딜레마로 인지되는 공식 경제와 비공식 경제의 불가분리일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최고 의결 기관인 노동당이 제9차 당 대회에서 거론한 이 문제는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는 시장화 진전이 계획경제를 침식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8차 당 대회(2020)와 달리 제9차 당 대회에서 사회문화 전반의 노선과 방향이 정치·경제와 동일한 비중으로 향후 5년간 국정과제로 급부상한 이유다.

그렇다면 북한 사회문화는 정치·경제와 어떻게 연동되어 급변하고 있으며, 체제 근간을 흔들고 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개조’ 현장으로 지목한 기지들의 실제 현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교 학습 거점 ‘생산기지’ 현장

경제적 관점에서 ‘생산기지’는 원재료 조달부터 제품 가공, 유통이라는 일련의 생산 공정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거점을 말한다. 이는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원가를 낮추어 효율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단위인데, 북한도 역시 이러한 기능을 전통적인 지방경제 자립에 활용한다.

다만 중앙공업과 지방공업의 생산 단위는 운영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앙공업이 국가의 예산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받는 구조라면, 지방공업은 가용할 수 있는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자립형 모델이다. 이는 시,



〈2025년 12월 18일, 황해남도 장연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을 찾아 지방 상표를 단 맥주를 들여다보는 김정은 위원장〉

군 단위로 주민들의 의식주를 지방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원이 군수공업 등에 집중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다. 코로나19, 대북 제재, 자연재해라는 3중고에 대응해 김정은 정권이 시, 군 발전법(2021)을 제정한 배경이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이용해 지역 스스로 자급자족하라는 정책 기조는 2024년 발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본격화되었다. 도농 격차 해소로 주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에서다. 이에 따라 매년 북방산골부터 황해도 전연지방 등 20개 시, 군에는 10개의 지방공업공장이 완공되고 있다. 이곳이 바로 당국이 공언한 ‘생산기지’들이다. 최고지도자가 착공식과 준공식에 직접 참가한 지방공업공장은 ‘사적지단위’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생산기지는 자본주의 요소가 들어서면 안 되는 모순을 내포한다.

하지만 현실은 괴리가 존재한다. 당 정책을 반드시 실행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동원해 공장 외관은 마무리하지만, 설비 구축 단계에서 난관에 봉착한다. 대북제재로 설비 수입이 제한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자금 해결이다. 외화만 확보되면 설비 도입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개인 돈주와 손을 잡는 것이 불가피하다. 토목공사에 필요한 중장비부터 생산설비 도입에 필요한 외화를 개인에게 차용하는 방식은 사회주의 경제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출발점이다.

특히 지방공업공장이 완공된 이후, 행정 일꾼들은 식품 생산 등의 품질 요건과 생산 실적을 중앙에 보고해야 하는 압박이 따른다. 따라서 설탕, 밀가루 등 원·부자재 대부분을 중국시장에서 수입한다. 국제시장 가격으로 조달된 원자재로 생산원가를 보전하면서도 확대 재생산을 이어가려면 상품 가격은 시장가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시, 군마다 부활한 국영상점에서 판매하는 된장, 간장 등의 가격이 장마당과 동일하다는 외신 보도(RFA, 2024.10.28.)는 이러한 필연성을 반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 매체가 선전하고 있는 지방공업공장의 정상 가동은 자본주의적 경영원리가 작동하는 현장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영기업과 개인 돈주의 공조를 확장시킨다. 2022년 국가유일무역이 복원되면서 개인의 밀무역은 금지되었으나(VOA, 2022.2.9) 지방정부와 기업 단위 밀무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중국 장백과 마주한 북한 해산

세관으로 일본산 토요타 차량 수백 대가 한 번에 유입되는 현상도 이 때문이다(아시아프레스, 2025.10.28).

따라서 북한 당국이 원료와 자재를 공급하지 않은 채 민생을 운운하며 지방경제 자립만을 강구할수록 ‘생산기지’ 경영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는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비효율성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체감하는 ‘비교 학습의 거점’이 되고 있어 주민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연 이것이 ‘사상’의 문제일까.

개인의 욕망과 문화 소비 공간 ‘봉사기지’

사회주의 생활문화는 국가가 규범화한 집단문화와 생활양식을 말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은 사회가 요구하는 미에 도달하도록 스스로 과제를 부여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미용에 투자한다. 이는 한 사회 내에서 몸을 가꾸는 자와 가꾸지 않는 자로 이분화해 미용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면화된 미적 욕망과 자기관리 의식은 개인이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사이 자신의 몸을 규율하게 만드는 미시권력으로 작동한다.¹⁾

북한 사회에서도 미적 욕망은 사회주의 생활문화 양식이 규율하는 미시권력으로 작동해 왔다. 머리 모양부터 화장, 옷차림에 이르는 자기관리 의식이 집체적이고 동일한 스타일을 규율하는 정책으로 재현된 것이다. 하지만 시장화가 진전되며 개인의 욕망과 문화적 소비는 달라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획일적인 머리 모양과 옷차림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개성적인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미시권력에 암묵적으로 대항하거나 그것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힘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규범을 넘어서며 북한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봉사소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²⁾

종합봉사소는 수영장, 목욕탕, 식당 등 대중문화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현금 흐름이 가장 원활하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이곳은 ‘고객이 왕’이라는 서비스 원리가 자본주의 방식으로 발현되는 현장이다. 북한

의 시장화를 평가할 때 소비재시장과 서비스시장이 발달했다고 분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통일부, 2024). 이러한 흐름 속에 개인은 자금 규모에 따라 봉사기지를 창업하고, 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면서 사회문화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개인 봉사망의 수적 증가는 지방정부의 예산 확충과 맞물려 있어 주민 의식변화를 가속화하는 구조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5년 2월, 김정은 위원장은 ‘지방발전 20×10 정책’ 일환으로 종합봉사소 건설을 지시했다. 그는 강동군 종합봉사소 착공 현장에서 ‘지방의 낙후성과 후진성이 문화생활 영역에 더 많이 잠재해 있다’며 정책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사회주의 서식장’이라며 통제해 왔던 개인 봉사기지들을 제도권 내 흡수하여 재정 확충과 자본주의 문화의 확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렇다면 왜 종합봉사소 운영은 당 정책과 근본적인 모순을 내포할까. 2025년 12월, 김정은 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강동군 종합봉사소 준공 현장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면 수영장, 목욕탕, 체육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져 있다. 그러나 화려한 외관 이면에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대형 수영장을 운영하려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기 공급이 선행돼야 한다. 만성적인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에서 중요 군수 산업들에 공급할 전력조차 부족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영 봉사기지의 에너지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수영장은 에너지를 자체로 조달해야 한다. 북한 시장 내 디젤유 발동기 수요가 급증하는 배경도 이 때문이다. 혹은 종합봉사소 지배인의 능력으로 송배전소로부터 전력을 배분 받더라도 ‘외화 로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영장을 비롯한 종합봉사소 산하 기지들은 시장가격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목욕탕, 식당, 미용실, 체육시설 등 봉사기지는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수록 고객이 증가하며 수익이 상승하는 자본주의적 선순환 구조다. 이는 사회주의 문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사상개조 현장으로 ‘봉사기지’를 지목한 것도 결국 이러한 시장 논리 침투로 사회문화가 변화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혁 투쟁’으로 인간개조를 주창하면서 서비스 봉사망의 실적을 올리라



〈2025년 12월 15일, 평양 외곽 강동군에서 열린 지방공업공장, 종합봉사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종합봉사소 내 수영장을 둘러보는 김정은 위원장〉

1)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나남, 2005)

2) 최설, 『생산도시 순천: 북한 신지역경제의 탄생』, (힐데와쇼피, 2025)

는 당 정책 자체가 모순이 아닐까.

나가며

북한 당국이 제9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새 시대의 5대 요구’는 민심을 다 잡고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통제 기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하지만 국가 공급망의 복원을 주창하며 주민들의 자생적 시장 활동을 억제하면서 사상개조를 강구할수록 민심 이반은 심화될 것이다.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강철을 주조하듯 인위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깨우친 인간은 더 이상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국이 진정으로 경제적 발전과 건전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실리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

탈북민 수기: 김정직 목사

제 4화

연변으로 보낸 편지의 답을 석 달이나 기다렸지만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답을 마냥 기다리고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에 결국 저는 직접 외당숙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같이 기관사로 일하고 있던 친구가 본인도 중국에 가서 누나를 찾겠다고 했기에 함께 강을 넘기로 했습니다. 북한 남양에서 야밤에 조심스럽게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건너편 중국 도시인 도문이었습니다. 강을 건너오면서 다 벗어버린 옷을 질질 끌고 마을로 들어가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사람들은 저희가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친구와 연길까지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루에 150리(약 60km)를 걷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건다가 사람이 보이면 숨고,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야 다시 길을 가고, 때로는 아주 돌아서 가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산 밑에 터널이 있는데 사람이 서서 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관리자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정복을 입고 서 있었는데 시꺼먼 옷을 입고 있는 것이 경찰인 것 같아 피해서 산을 빙 둘러 돌아 넘어갔습니다.



〈두만강변에서 바라본 중국 도문시 (왼쪽)와 북한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오른쪽)〉

그렇게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저 산을 넘어 건다가 한 농촌 마을을 지날 때 한 남자가 소를 데리고 밭갈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우리가 연길로 가고 있는데 도움받을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마을 촌장이었고 한쪽이었지만 다행히도 조선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소를 묶어 두고 우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허기진 배를 채울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입을 옷가지들도 찾아 주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가 옆에서 끓이던 찹쌀 죽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큰 가마로 한 가마니 가득 찹쌀 죽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많이 찹쌀죽을 만드나 했는데 알고 보니 소가 출산을 했다고 소를 먹일 찹쌀죽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찹쌀은 귀해서 잘 보지도 못하는 것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소에게 그런 귀한 것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은 촌장님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나갔습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촌장님은 중국 돈 8원을 쥐여 주시며 내일 버스를 타고 연길에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돕는 손길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기적이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덕분에 다음날 버스를 타고 드디어 연변대학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몰라 학교 정문 앞을 서성이고 있으니 정문 옆에公安부(경찰서)에서 주임이란 사람이 나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나를 보는 그에게 솔직하게 내가 북조선에서 왔는데 살기 바빠 외당숙을 찾으러 왔고 그분은 이 학교에 재직 중인 김아무개 교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임은 내 이야기를 듣고는 나를 데리고 학교를 돌아다니며 외당숙님을 수소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 주임과 다시 정문 앞公安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사무실에 잠시 앉아 있으려니 갑자기 그 주임이 “아새끼, 제 배만 똥똥하게 나오고 말이야”하면서 김정일을 욕했습니다. 제가 들으며 어떻게 생각할 지 아랑곳 하지 않고 김정일이 어떻게 저떻고 하면서 비방을 계속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의 장군님을 왜 이리도 심하게 욕하는가 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파 굶어 죽은 동생을 보고,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김정일은 ‘우리 장

군님’이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나라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 도강을 해 중국까지 온 상황에도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세뇌 교육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분은 친절하게 저에게 대학교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컴퓨터실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컴퓨터실에서 그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자 한 여성분이 인사를 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나를 소개해 주며 북한에서 외당숙을 찾아왔는데 찾을 수가 없다며 김아무개 교수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다행히 그 여자는 저희 삼촌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외당숙은 교수에서 조직부장으로 승진이 되셔서 그냥 ‘무슨 학과 교수’ 라고 찾아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성은 외당숙이 일하고 있는 부서에 전화를 걸어 알아봐 주었지만, 때마침 다른 지역 농업대학으로 출장을 나가시고 자리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주임은 나에게 버스비 5원을 주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여 일단 다시 촌장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당숙을 찾게 되어 너무 다행이었지만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자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하는 수 없어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 조선족 아주머니가 북한에서 왔느냐며 말을 걸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분에게 외당숙을 찾기 위해 북한에서 온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분은 연길에서 다시 촌장님이 있는 마을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면서 일단 본인의 집으로 가서 식사라도 하자고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바로 돌아가기가 싫어 그 아주머니를 흔쾌히 따라나섰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빵과 음식이 가득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국 공기보다 큰 밥 한 공기를 똑딱 해치우고 주먹만 한 빵 네 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본인이 같이 사는 아들과 둘이서 하루 세 끼 먹을 분량이었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원을 건네주며 다시 연변대학 경비실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재워달라고 부탁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어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



〈연변대학 정문〉

데 학교로 돌아가는 도중에 웬지 그 아주머니가 나를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경비실로 가지 않고 학교 뒤에 뒷산으로 올라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다음 날 일찍이 학교에 조직부장실 앞에 가서 삼촌을 기다리고 있으려니 경비원이 보안카메라를 보고 쫓아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라고 소리치며 다가오는 경비원에게 외당숙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초지종을 듣고는 저를 경비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외당숙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북한에서 조카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외당숙은 한걸음에 저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익숙한 얼굴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중국이 북한보다 못 살던 시절, 종종 우리 집에 떡을 만들러 오시던, 제가 사랑했던 우리 외할머니의 언니 되시는 이모할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셨을 것인데도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연변대학에서 재직 중인 외당숙은 이모할머니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마침 전날 집안의 행사가 있어 아들 집에 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너무나 반겨주셔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큰 아드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 외할머니의 막넛동생 되시는 할아버지(이하 막내 할아버지)도 와 계셨습니다.

가족 상봉의 기쁨을 나눈 후에 이모할머니는 제가 난생처음 듣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외가댁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사시는 이모할머니와 막내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계셨을 뿐 아니라 저희 외할머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는,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북조선에 계셨던 외할머니께서는 너무나 심한 박해 상황이다 보니 저희 어머니를 비롯한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수용소에서 동생의 손바닥에 썼다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리고 외할머니의 농짝 깊은 곳에서 발견했던 나무 십자가도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모할머니께서는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왔던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했

습니다. 그러시고는 어떤 문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 문건에는 저의 친 증조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문건에 기록된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 즉 저의 친 증조할아버지의 성함은 ‘김익두’이셨습니다. 이모할머니께서는 그분이 일제 강점기에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부흥사로 큰 업적을 남긴 목사였다고 했습니다. 낯선 이야기였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기독교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꺼낼 수 없는 말인데 나의 친 증조할아버지가 기독교 목사였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모할머니는 매우 자랑스러워하시며 ‘너희 집안은 순교의 집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모할머니께서는 아버지를 만나셨을 때 이 문건을 주셨지만, 당시 아버지께서는 본인의 신변이 불안한 상황이었기에 가져가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모할머니께서는 그 문건을 저에게 가져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이모할머니께서 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50년 10월 14일, 황해서 신천에서 순교하신 김익두 목사〉

사실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기 때문에 처음 어머니와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는 어머니의 집안에서는 탐탁지 않아 하셨었다고 들었습니다. 두 분이 만나신 경위는 이렇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사촌오빠가 아버지와 같은 학교에 다녔는데, 여름방학마다 고아인 아버지가 갈 곳이 없어 하니 사촌오빠가 함께 고향에 데리고 오면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마음에 품었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탄광으로 추방당했을 때에 아버지를 쫓아 탄광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1화 참고). 당연히 외갓집은 신분이 낮고 고아인 아버지를 반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외가에서 아버지의 문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황해도에서 높은 자리에 있던 외가 가족들이 아버지의 문건을 조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신앙을 지키고 있던 외가 가족들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 알고 그 문건을 숨겨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어찌 되었든 이모할머니는 아버지가 방문 하셨을 때도 저의 친 증조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막내 할아버지께서 안수집사로 섬기고 계시는 도문 교회에 머물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도 막내 할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가셨던 루트와 동일하게 도문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집안 같은 것은 그때 당시 저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남겨두신 돈과 옷가지를 찾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살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집안이었다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지는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중국에 넘어온 목적만을 되새기며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계속) 

평양-베이징 북중 여객열차, 6년 만에 재개

북한 평양과 중국 베이징을 오가는 국제열차 운행이 코로나19 이후 약 6년 만인 3월 12일 운행을 재개하였다. 해당 열차는 평양과 베이징에서 각각 출발하고,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에서 한 차례 정차한다.



(3월 12일 오후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증조우의교를 건너고 있는 평양발 베이징행 여객열차 (사진=연합뉴스))


매주 4회(월·수·목·토) 왕복 운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아직 중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기에 상무 비자 등을 갖고 있는 경우만 열차 탑승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전면 해제한 이후에도 북중은 화물열차 운행을 일부 재개했을 뿐, 여객 열차 노선은 재개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 전후로 단

둥역에 국제 여객 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고,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 폐막 무렵에 여객 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모양새이다.

한편 중국 국적 항공사 중국 국제항공(에어차이나)도 베이

징-평양 직항 노선 운항을 6년 만에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0일부터 운항 예정인 이 직항편은 4월 6일, 13일, 20일, 27일 등 주 1회 운항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중 인적 교류의 핵심 통로인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면서 양측 교류는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참고: 조선일보, 3월 10일 외 언론 보도 종합) 

북 “벨라루스 루카셴코 대통령 공식 방북”... 러 맹방과도 밀착

러시아의 맹방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25~26일 이틀간 북한을 방문해 정상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러시아 타스통신은 보도했다.

벨라루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

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늘리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루카셴코 대통령은 1994년부터 집권해 지난해 대선에서 7선에 성공하면서 2030년까지 임기를 늘렸다. 장기 집권하는 두 정상의 만남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참고: 연합뉴스, 3월 24일) 

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국으로 공인”... 헌법 개정 밝혔지만 미공개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폐막일에 시정연설을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 이어 3월 22일부터 양일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최룡해에서 조용원으로 교체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폐막일인 지난 3월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거나 “대화나 대결에 모두 준비돼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금 밝혔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혀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참고: 경향신문, 2026.03.24.)

김정은, 각종 군사 훈련 지도... 김주애도 동행



<지난 3월 19일 신형 전차를 동원한 전술훈련을 참관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딸 김주애 (사진=조선중앙TV 캡처)>

3월 한달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주애와 함께 여러 군사 훈련을 참관하여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취역을 앞둔 5천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3월 4일에는 현장에서 10일에는 화상으로 각각 참관했다. 3월 10일 훈련에는 김주애도 함께 자리했다. 조선 중앙통신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서해상 비행궤도를 따라 1만116~1만138초(2시간48분36초~2시간48분58초)를 비행한 뒤 섬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미사일의 사거리는 2천~2천500km로 보여 해외 미군기지 타격 등 대미용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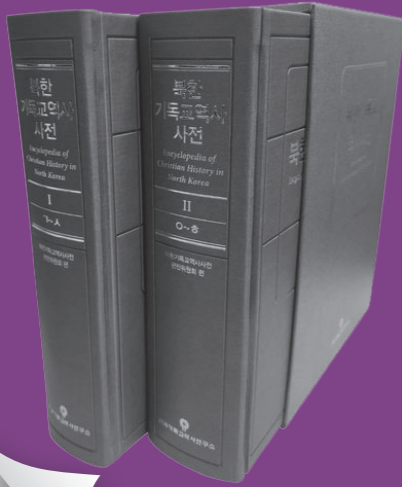
김 위원장은 3월 15일에는 600mm 초정밀다

연장방사포 타격훈련을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훈련 목적에 대해 "우리에 대한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420km 사정권 안에 있는 적들에게는 불안을 줄 것이며 전술핵무기의 파괴적인 위력상에 대한 깊은 파악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는데, 이 무기가 대남 타격용이며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3월 19일에는 인민군 수도방어군단 직속 평양 제60훈련기지를 방문해 신형 주력 전차 '천마-20'을 동원한 공격 훈련을 지도했다. 김 위원장은 능동방호체계(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갖춘 이 전차가 앞으로 "대대적으로 장비(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연장방사포와 신형 전차 훈련 모두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동행했다. 특히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이 전차 갑판에 앉은 가운데 주애가 조종석에 앉아 전차를 직접 모는 모습이 담긴 3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참고: 연합뉴스 외 언론보도 종합)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북한기독교역사사전

저 자: 북한기독교역사사전
편찬위원회

출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가 격: 40만원 (2권 1세트)

“21세기에 인류가 쏟아내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은 그 이전 세기 모두의 기록을 합친 것보다 많지만, 이들 기록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지난 199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세계의 기억’; Memory of the World) 사업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다토 하비바 존(Dato’ Habibah Zon) 말레이시아 국가기록원 사무총장이 한 말이다. 존(Zon) 사무총장의 말은 중요한 사건과 자료들이 파편화되고 결국 사라져가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다. 그러나 이 말이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곳은 북한, 그리고 북한선교 현장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서 북한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자료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외부에 공개한다. 북한 당국의 정보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정권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이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정보의 방치와 소실’은 북한선교현장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안문제로 인하여 주요한 사건, 이슈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정보공유, 정보에 대한 단체간 교차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처 없이 떠도는 수많은 간증들이 북한선교현장 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해방 이전 북한지역의 교회사에 대해서만큼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어 왔다. 한국교회는 교회 전래 초기부터 개교회의 주보, 당회록, 노회록, 총회록을 비롯한 각종 기록을 생산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고, 해방 후 대다수 교회 인사들, 지역교회, 노회가 남한으로 피난을 와 그 자료들을 학계에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기독교문사의 기독교대백과사전에는 북한지역 교회의 자료들이 충실하게 정리되어 있으며,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96년도에 발간한 ‘북한교회사’나 각 교단 별로 해당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몇몇 도서들, 장로교의 각 무지역노회(북한에서 내려온 노회)가 발간한 노회사 자료집, 피난성도들의 회고록은 북한지역 교회사 연구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렇듯 자료가 존재하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져 파편화된 북한 교회의 역사적 사료들을 집대성하는 일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나섰다. “북한기독교역사사전”은 2015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북한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어렵고 고된 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고 한다.

광복 80주년에 맞추어 완성된 ‘북한기독교역사사전’은 한국 교회가 마땅히 했어야 했던, 그렇지만 너무나도 어려워 보였던 과업을 해냈다는 점에서 참으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제작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도 대단하지만 그 결과물의 질도 훌륭하다. 사전을 펼쳤을 때 놀랐던 것은 각 항목마다 어떤 참고 문헌을 가지고 작성하였는지 그 근거 자료를 일일이 기재해 놓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사전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전을 찾아볼 연구자들이 관련 사료를 찾고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북한 교회나 관련 인물들의 사진 자료도 항목에 따라 첨부가 되어 있는데, 사전 편찬에 있어 얼마나 많은 자료를 모았고 이를 심혈을 기울여 편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전 형식이긴 하지만 내용이 간략하고 단순하게만 편집된 것은 아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교회나 지역, 인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풍성하게 내용을 담았다. 일례로, 사전을 살펴보면서 우연히 ‘선천’ 지역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15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선천 지역의 개관에서

부터 지역의 기독교 역사와 주요 사건들, 지역 출신 주요 인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이정도 수준이라면 웬만해서는 별도의 자료나 도서를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사전의 특성상 보통의 책을 읽듯이 이용될 책은 아니지만, 북한 교회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하거나 북한의 특정 교회나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사전은 좋은 시작점이자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월남한 교회나 가족이라면 이 책이 신앙의 뿌리가 있었던 교회와 지역에 대한 기록으로서 소장해야 할 책이라는 생각도 든다. 더 나아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북한 교회 역사에 관한 필수적인 교양을 책임져 줄 자료로서 '북한기독교역사사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월 말 열린 제9차 당대회에서 대남 강경 노선을 표명한 김정일은, 3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점차 약해지고 오히려 핵 무력이 더 증강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증진되고, 유사시 우발적으로라도 군사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 2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우호적인 국제 정세가 조성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핵 무력 증강은 러시아와 중국을 통한 경제 안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러우 전쟁 종전 이후 북러 관계, 그리고 북중 관계의 변화가 북한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과 앞으로의 북미 대화가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것인지도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가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기도합니다.
- 3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증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당대회에서 북한 당국은 민생 안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외치는 '이민위천'이 구호를 넘어 실제적이고 진정성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특별히 북한이 체제 안정을 위해 외래문화 통제를 넘어 '사상 개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당대회를 통해 시사하였는데, 이러한 북한 당국의 기조가 주민들의 권리를 더 침해하진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예배의 자유를 포함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1월 발표된 오픈도어선교회 세계기독교박해지수(World Watch List) 2026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꼽혔습니다. 더 극심해진 주민 통제로 인한 억압이 증대되고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박해가 적극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종교 물품과 미디어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밀리에 신앙을 가진 개인과 지하 교회를 적발, 추적하는 공안 조직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과 갇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 한총련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시던 장백의 장문석 집사님께서 12년 만에 풀려나셔서 중국으로 귀환하신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집사님께서 옥중에서 몸무게가 크게 감소하고 치아가 유실되는 등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셨지만, 오히려 가족들의 신앙을 걱정하며 믿음으로 수감 생활을 견뎌내셨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귀환을 기뻐하며 옥중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전히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 등이 억

류 중이고,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진 지하 교회 성도와 강제 복송 탈북 여성 신자가 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성도와 억류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연좌제로 인해 처벌 및 추방을 당한 지하 교회 성도 가족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중·러의 긴밀한 협력관계 속에서 베이징-평양 여객열차 운행이 3월 12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중국발 북한 관광도 곧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들립니다. 공공 얼어붙었던 북한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북·중·러 협력이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 확대로 이어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국가 간 외교적 긴장이 선교사의 체류와 사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일선의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7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파견되고 있고, 올해에도 그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들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등 인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들은 비록 통제 아래 있지만 북한 밖 세상을 경험하고 북한에서 듣지 못했던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착취가 중단되고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8 제3국 탈북 여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한국행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북한 여성들에 대한 복송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시기심과 악한 의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탈북 여성들을 포함하고 신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제3국에 체류하는 북한 여성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악한 계획이 무산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선교사와 현장 사역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안전하게 사역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창의적인 사역 방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6년 3월 31일

OpenDoors
WORLD WATCH LIST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2026

‘우리의 비전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홀로 박해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 목록에 대해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이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의 수와 심각성, 그리고 신앙 생활의 5개 영역에서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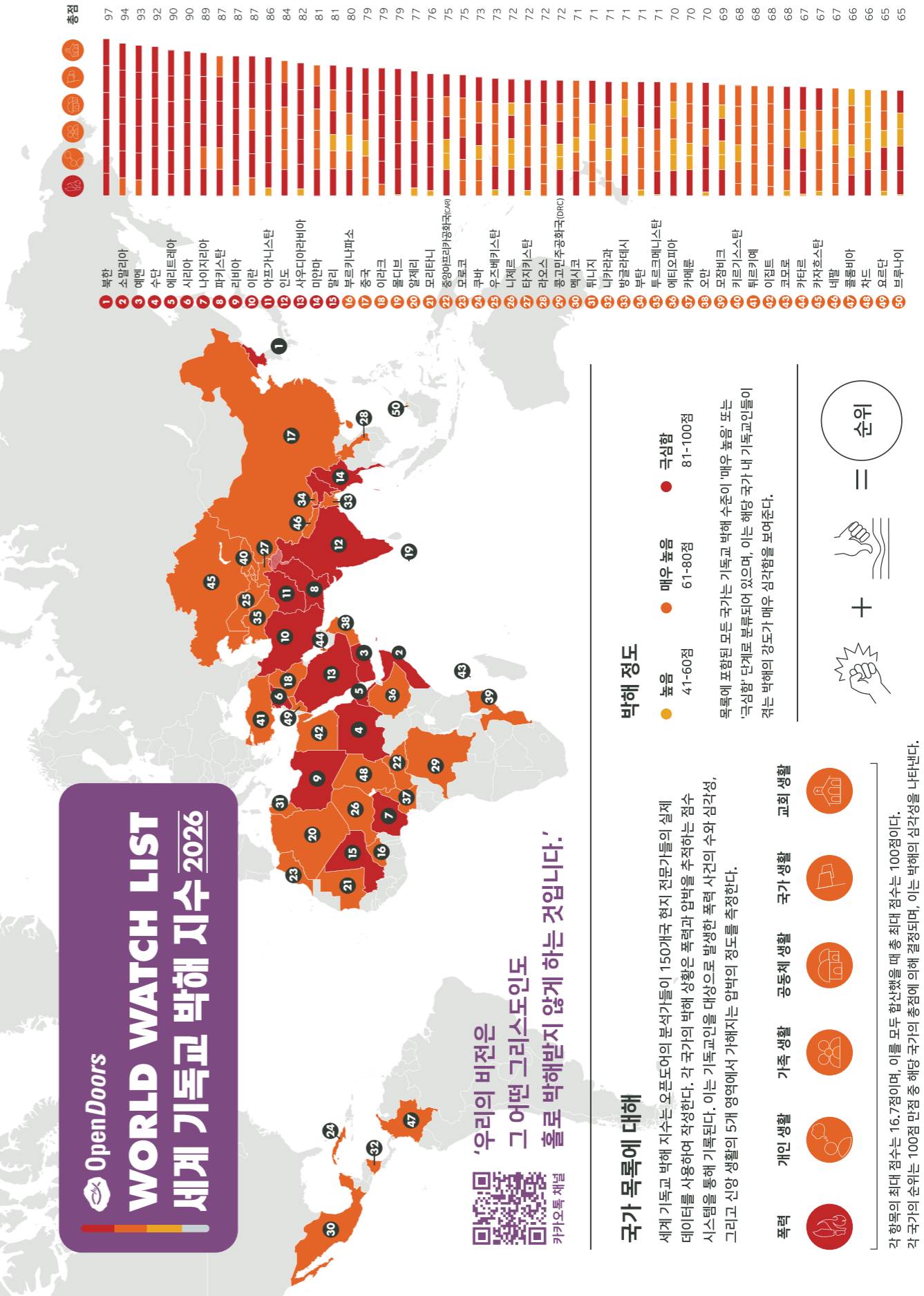
- 폭력
- 개인 생활
- 가족 생활
- 공동체 생활
- 국가 생활
- 교회 생활

각 항목의 최대 점수는 16.7점이며, 이를 모두 합산했을 때 총 최대 점수는 100점이다. 각 국가의 순위는 100점 만점 중 해당 국가의 총점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박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박해 정도

● 높음 41-60점
 ● 매우 높음 61-80점
 ● 극심함 81-100점

목록에 포함된 모든 국가는 기독교 박해 수준이 '매우 높음' 또는 '극심함' 단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 내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강도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다.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2026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북한선교와 통일 준비를 돕기 위한
제13회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정 및 시간 4월 6일 - 6월 29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 9시

진행 형식 온라인(Zoom) 강의 /
오프라인 기도회 및 아웃리치 진행

일 정(예정)

주차	날짜 (매주 월요일)	강의 주제	강사
1	4월 6일	개회예배, 오리엔테이션	
2	4월 13일	북한의 정치와 사상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3	4월 20일	북한의 사회와 문화	최 설 (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7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 (북한교회연구원)
5	5월 4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 (북한지하교회출신 사역자)
6	5월 11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 (북방선교방송)
7	5월 18일	북녘을 바라보는 기도회(DMZ)	
	5월 25일	휴강(대체공휴일)	
8	6월 1일	NGO를 통한 선교와 국제협력	정인수 (NKCCC)
9	6월 8일	국내정착 탈북민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뉴코리아교회)
10	6월 15일	제 3국 북한선교 현장이야기	현장사역자1
11	6월 22일	제 3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2
12	6월 29일	북한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성도	현장사역자3
	7-8월	비전트립	

회비 - 10만원(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단체 수강의 경우 별도 문의)

접수 오픈도어선교회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2월 23일 ~ 3월 31일)

문의 다니엘 선교사 (info@opendoors.or.kr / 050-6722-8448)

